

15세기 국어 표기의 단위와 특성

김 주 필*

I. 논의의 방향	III. 표기의 특성
II. 표기의 단위	IV. 결 론

I. 논의의 방향

《훈민정음》은 음소에 대응되는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음 音이나 자 字를 이룬다고 함으로써, 음소 단위의 문자들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하였다 1). 그러나 어떠한 국어사 자료에도 음절에서 문장에 이르는 표기의 단위나 방법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창제 후, 음절에서 문장에 이르는 표기의 단위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²⁾, 당시의 문헌을 통하여 표기의

* 국민대학교 부교수 국어학 전공

1) 《훈민정음》(언해)의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서 음을 이룬다(凡字必合而成音 와 《훈민정음》(해례) 합자해의 “초·중·종 3성이 합해져서 글자를 이룬다(初中終三聲 合而成字)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훈민정음》에서 음소 단위의 문자 운용에 대하여 음절 단위까지 한정하였는데 이는 ‘훈민정음’이라는 새 문자체계를 한자의 ‘字’ 단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훈민정음’의 특징에 대한 논의에서 음소 단위를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훈민정음’에서 음소 단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자사적 의미를 갖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음절문자 형태소(또는 단어) 문자와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각 문자 유형의 최소 단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 다른 유형의 문자와 대응되는 ‘훈민정음’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음소뿐만 아니라, 음절, 형태소나 단어, 나아가 문장 단위의 표기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이 갖는 문자·표기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훈민정음’은 언

기준이 적용되는 단위를 살펴보고, 그 단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표기 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대국어 표기가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의 표기 단위도 어절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15세기 문헌의 표기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사실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문헌에 나타나는 ‘술븅리(〔숯- + -을〕 [이]), 용가, 제13장), 땡골쏘리(〔땡골- + -을〕 [소리]), 석보, 6; 16a)’ 등은 문장 성분이 되는, 어절을 단위로 한 표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들을 포함하여 15세기 국어의 표기가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은 ‘음소적·음절적 표기’였던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훈민정음’이 음소문자이면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의 표기를 ‘음소적·음절적 표기’로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음소 단위의 문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는 점에서만 보면, 현대국어 표기도 ‘음소적·음절적 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기문(1972; 119~120)에서는 ‘음소적·음절적 표기’를, 좁은 의미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면에 실현되는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그리하여 표면형에 충실히 대응되는 표기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음소적·음절적 표기’ 원칙은 15세기 문헌의 많은 표기 예들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마숨은~마숨문’, ‘듣느니~듣느나’, ‘깊고~깊고’, ‘좃줍거늘~좃줍고~좃줍바~좃줍바’, ‘맛나스바~맛줍고~맛줍바~맛줍바’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15세기 국어의 모든 표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이 적용되는 단위를 살펴보고, 표기의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 음소론적 교체에서 드러나는 표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II장에서는 15세기 국어 표기 단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표기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 음

어학의 여러 층위에서의 분절 단위가 ‘훈민정음’의 문자·표기 단위로 대응되면서, 각 층위의 문자·표기는 그 하위 층위의 구성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특징은 다른 문자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갖춘, 그리하여 ‘한글’만이 보여주는 과학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징이 아닌가 여겨진다. 언어의 분절과 문자의 분절에 대해서는 Coulma(1989; 37~54)를, 국어 문장에서 음소까지의 분절 단위와 한글의 문자·표기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김주필(1999)를 참조할 것.

소문적 교체 현상과 표기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15세기 국어 표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훈민정음 창제 후에 나타나는 표기 원칙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 자료를 15세기 중기 문헌에 국한할 것이다.

II. 표기의 단위

다음에 제시하는 (1)의 표기는 《용비어천가》 제30장이다.

- (1) 뒤혜는모딘도죽알피는어드본길혜
 업딘번게를하늘히불기시니
 뒤혜는모딘중싱알피는기픈모새
 열본어르물하늘히구티시니

(1)에서는 표면 음소 /tuy.həy.nin.mo.tin.to.tʰak……/를 각 음소에 대응하는 문자로 나타내되, ‘뒤.혜.는.모.딘.도.죽.……’과 같이, 음절의 핵을 구성하는 모음을 중심으로 그 선행 자음과 후행 자음을 결합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³⁾ 음절 단위로 모아 표기하였다. (1)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표면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썼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의 표기는 대체로 표면 음소와 표면 음절에 대응되는 특성을 보여준다(이기문 1963; 94-96)⁴⁾. 이기문(1972)에서는 이러한 표기 특성에서 드러나는 표면 음소 중심의 표기를 ‘음소적 표기’, 표면 음절 중심의 표기를 ‘음절적 표기’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이 모두 음소적·음절적 표기인 것은 아니다. 음가 없는 초성 ‘ㅇ’을 중심으로 표기의 경계가 만들어져 음소적·음절적 표기에 단절이 생기기 때문이

3) 음절에서의 위치에 따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고 중성의 글자 모양에 따라 초성과 종성의 위치를 달리 하여 음절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4) ‘음소적 표기’와 ‘음절적 표기’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15세기 국어의 표기 특징을 III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II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표기 단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의 표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문(1972)의 ‘음소적·음절적 표기’의 적용 여부를 가지고 하기로 한다.

다. 가령 ‘도죽알퓌는, 중싱알퓌는, 알퓌는어드복, 열븐어르말 등에서 ‘ㅇ’은 선행 음절에 중성이 있더라도 그 중성을 ‘ㅇ’의 자리로 이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소적·음절적 표기의 단위가 ‘ㅇ’ 앞에서 나뉘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성 ‘ㅇ’이 속한 음절 앞에서 나뉘지는 표기의 단위는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므로, (1)에서는 통사 단위인 어절 중심으로 음소적·음절적 표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는 당시의 음소적·음절적 표기가 항상 어절 단위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⁵⁾.

(2) 말쓰를 슬븨리 하디(용가, 제13장)

나라 니스리틀 곳게 흐시느니(석보, 6; 7b)

中間흐니를 니브라(월석, 25; 15a)

(2)의 ‘슬븨리, 니스리, 中間흐니를’은 용언의 관형형인 ‘슬븨리 니슬 中間흐 에 의 존명사 ‘이’가 결합된 예들이다. 의존명사는 항상 수식 성분을 필요로 하지만 문장에서 자립 명사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여 독립된 어절을 구성한다. 그런데 (2)는 의존명사가 구성하는 어절을 선행하는 어절에 묶어 하나의 단위처럼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소적·음절적 기준에 따르는 표기의 단위가 항상 어절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의 밑줄 친 예들은 어절을 넘어서도 음소적·음절적 표기를 하였다.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의 경우, 표기의 기준을 어절 경계를 넘어서까지 적용한 이유는 의존명사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의존명사에 조사가 결합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은 발화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현희, 1990; 682), 이러한 예는 중세국어 성조의 율동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성조는 기식을 경계로 하는 어절 단위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은 성조의 율동 규칙에서 독립된 어절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선행 어절의 접사처럼 행동하였다. 예를 들어, 의존명사가 포함된 (2)의 ‘니스리틀 의 기저 성조는 ‘LHHH’였으나, 이 성조들의 연쇄는 거성(H) 이 세 번 연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

5) 이하에서는 표기의 단위를 드러내기 위해 현행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하기로 한다.

는 제약(김완진, 1973)으로 표면에서 ‘LHLH’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어절 중심의 단어음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의존명사의 음운론적 행위를, 유필재(1994)에서는 이병근(1986)에서 제기한 발화음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어절을 넘어서 일어나는 의존명사의 이러한 교체 현상들은 의존명사가 형태·통사적 구성으로부터 표면화되고 나서, 발화 차원에서 단어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접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필재(1994)에서는 ‘의존명사 + 조사’를 ‘선행 어절 + 의존명사 + 조사’를 ‘음운론적 단어’로 간주하여 발화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면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은 선행 어절의 접사처럼 결합되어 선행 어절과 함께 형성하는 음운론적 단어로 간주되는 바, (2)의 예들도 음운론적 단어라는 발화 단위의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표기 예들도 이해할 수 있다.

- (3) 須達이 올 딸 아라시고(석보, 6; 20b)
 제 나라호로 갈 찌기(석보, 6; 22a)
 이 싸해 精舍 이르스불 제도(석보, 6; 37a)
 문 흘 빼니(법화, 3; 131b)

(3)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드, 적, 제, 바’ 등은 모두 의존명사이다. 관형사형 ‘-르’ 뒤의 경음화 현상은 어절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 현상의 결과를 반영한 (3)의 표기도 음운론적 단어로써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운론적 단어 단위로 일어난 경음화 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3)의 예들도 음운론적 단어 중심의 표기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르’ 뒤의 경음화 현상은 의존명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자립명사가 오더라도, 자립명사의 두음이 경음이 될 수 있는 음이라면 (4)와 같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4) 그되 가 들 찌비 불써 이도다 호고(석보, 6; 35b)
 舍衛國에 올 쓰릿길혜(석보, 6; 23a)

차반 핑글 소리 위즈런헝거늘(석보, 6; 16a)

(4)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립 명사 ‘집, 스릿길, 소리’ 등이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서 경음화되었다면, 경음화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4)의 ‘들찌비, 올싸 싯길헤, 핑글소리 도(3) 과 같이 어절을 넘어서 일어난 경음화의 결과를 표기한 것이므로, 이 예들도 발화음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4)의 ‘집, 스시, 소리’ 등은 자립명사로서 선행 어절에 결합된 접사처럼 행동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예들을 (3)의 예들처럼 음운론적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자립 명사에 일어난 이러한 경음화 현상의 적용 단위를 ‘음운론적 구로 간주한 유펜재(1994)의 논의를 따른다면⁶⁾, (4)는 발화 차원의 ‘음운론적 구’ 단위로 설명할 수 있다.

(1)~(4)의 예들을 바탕으로 하면, 표면 음소를 모아 음절 단위로 표기한 당시의 음소적·음절적 표기는 어절, 음운론적 단어, 음운론적 구 등 다양한 단위에 적용되었다. 이 단위를 가운데, 어절은 일반적으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가리키지만, 이러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은 곧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이 된다. 그러므로 (2)와 (3)의 예들을 고려하여, 발화단위로서의 어절이 포함되는 음운론적 단어나 음운론적 구를 모두 포괄하면, 15세기 국어의 표기는 발화 단위를 중심으로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의 예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1)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석보, 6; 24b)

제 흘 양으로 헝게 헝라(석보, 6; 27a)

2)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 배 이셔되 훈민정음 언해

바르를 건너실 제(용가, 제18장)

섬 안해 자실 제(용가, 제67장)

6) 음운론적 행위와 통사적 기능이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통사 단위와 함께 음운론적 단어를 형성하는 ‘의존명사, 부정 부사, 보조용언 등이 15세기 표기에서도 모두 동일한 표기 특성을 보여주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존명사가 자음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부정부사 ‘안’은 15세기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다’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경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5.1)은 (2), (3)과 같이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이지만 (2), (3)과 달리 선행 어절과 분리하여 표기한 예들이고, (5.2)는 (4)와 같이 관형형 ‘-르’ 다음에 오는 의존명사가 경음화되는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지만 (4)와 달리 선행 어절과 분리하여 표기한 예들이다. (5)의 예들은 발화 단위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2)-(4)의 예들과 달리,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중심으로 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기는 하지만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발화 단위 중심으로만 표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5)의 예들을 고려하면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과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5.2)는 (3)~(4)와 같이 통사 단위인 어절을 뛰어 넘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3)~(4)와 달리, 통사 단위인 어절을 중심으로 표기하면서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관형사형 ‘-르’ 다음에 ‘ㅎ’을 쓰고 그 다음 어절의 첫 자음을 전청자로 써서, 통사 단위인 어절 단위를 중심으로 표기하면서도 발화 단위의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 어절의 마지막 자음자와 후행 어절의 첫 자음자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음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이다. (5.2)와 같이,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중심으로 표기하면서도 발화 단위의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표기는 (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 **꺄 길히 입더시나 용가 제9 장**

꺄헤 머므르싯 지비라(석보, 6; 23a)

빋 나뉘 여희웁 디니(월석, 25; 18b)

(6)은, 관형형 ‘-르’ 다음에 오는 어절이 의존명사인 (5)의 예들과 달리 자립명사인 경우이다. (6)의 자립명사도 관형사형 ‘-르’ 다음에 경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6)의 예들도 (5)와 같이 표기상으로는 통사단위로서의 어절을 중시하면서 어절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은 ‘ㅎ’과 ‘ㄱ, ㅈ, ㅊ’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의 경음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음을 파열시키지 않고 다

음 소리를 경음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ㅇ’은, (6)과 같이 표기와 발화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기 원칙을 지키면서 발화 차원의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간주된다⁷⁾.

이러한 관점에서, 15세기 국어 표기 단위는 원칙적으로 발화 단위와 통사 단위가 일치하는 어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 발화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할 수도 있었고,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표기의 단위인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하면서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발화 층위의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표기의 특성

‘훈민정음’ 창제 후, 15세기 국어를 ‘훈민정음’만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었고,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자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훈민정음’만을 사용한 문장이나 구절이 나타난다.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사용하든 ‘훈민정음’만 사용하든, 표기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일치하는 어절이었다. 이러한 어절은 대체로 명사나 용언 어간과 같은 실사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허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들 어절을 구성하는 실사와 허사의 표기 방법은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쓸 때와 ‘훈민정음’만으로 쓸 때는 동일한 표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용비어천가》의 다음 표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7) 표기의 관점에서 ‘ㅇ’과 ‘ㅎ’의 기능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ㅇ’은 단순히 자음이 없는 음절의 초성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ㅎ’은 앞 소리를 파열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소리를 경음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기호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환경의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고유어의 표기에 있어서 ‘ㅇ’과 ‘ㅎ’은 표기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ㅇ’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어절을 나타내며, 관형형 ‘르’ 다음의 ‘ㅎ’은 어절이 끝남을 알려줌으로써 표기 단위를 표시하면서 표면의 발화 층위의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7) 1)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호시니(용가, 제1장)
2) 불휘 기픈 남근 브르메 아니 뵘찌
곳 도쿄 여름 하느니(용가, 제2장)

(7.1)과 같이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六龍이 天福이시니 古聖이’ 등과 같이 실사는 한자로 허시는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리하여 실사는 형태가 고정되지만, 허시는 선행 음절의 조건에 따라 교체된 이형태가 표기되었다

그러나 (7.2)와 같이 ‘훈민정음’만으로 표기할 때에는 명사나 용언 어간 같은 실사와 조사나 어미 같은 허사가 결합된 어절은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표면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표기하였으나, 실사의 형태를 밝혀 적은 예들도 나타나고,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표기들도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표기의 특성을 실사가 허사와 결합되는 네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 (8) 실사 + 허사⁸⁾
- 1) 유형1: (X)V + V(Y)
 - 2) 유형2: (X)V + CV(Y)
 - 3) 유형3: (X)VC + V(Y)
 - 4) 유형4: (X)VC + CV(Y)

(8.1)은 모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실사와 허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모음 연쇄를 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모음 연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실사와 허사의 경계에서 모음 탈락, 반모음화, 반모음 y나 w의 첨가 현상 등이 일어나는데, 이들 현상이 일어나면, 해당 음운현상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 (9) 1) 즘갯 가재 언즈니(용가, 제7장), 물 툰 자히(용가, 제34장), 키(석보, 6;

8) (8)에서 C는 자음을, V는 모음을, X는 실사의 마지막음을 제외한 나머지를, Y는 허사의 첫 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 46a), 山行가 이셔(용가, 제125 장)
 2) 일위시니(용가, 제21 장), 너교딘(석보, 6; 19b), 느려 와(석보, 6; 19b),
 하늘해 갓다가 (석보, 6; 19b), 분테(석보, 6; 44b), 손뚝과를 바혀(석보,
 6; 44b)
 3) 두리연(석보, 6; 29b), 스시예(석보, 6; 45b), 모도와(금삼, 1; 5b), ㄱ초
 와(금삼, 3; 52a)

(9.1)은 실사의 ‘ㅌ-, ㄱ-, 가지, 가.’에 허사 ‘-오-, -이, 애, -아’가 각각 결합되면서 일어난 실사의 ‘-, 一, 1, ㅏ’가 탈락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9.2)는 실사 ‘일우, 너가, 느라, 오, 부터(佛), 바하’ 등에 허사 ‘-어사, -오딘, -어 -아 이, -어’가 각각 결합될 때 일어난 활음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⁹⁾. (9.3)은 실사 ‘두라, 스시, 모도, ㄱ초’에 허사 ‘-어, 애, -아, -야’가 결합되면서 참가된 y 나 w 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 유형에서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실사와 허사의 기저형은 그대로 표기하였다.

(8.2)는 모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음운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사는 기저형과 표면형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여 실사는 고정된 형태로 표기되었다¹⁰⁾. ‘마리틀(월인상, 3b), 보스보려뇨(석보, 6; 19a), 가며(석보, 6; 15b)’ 등에서 보듯이, 실사는 고정되지만 허사는 이형태들이 그대로 표기되었다. 가령 ‘을, 을, ㄹ, ㄹ’ 등과 같은 이형태들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이형태이지만, 선행하는 실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그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선택되는 환경에서는 선택되는 이형태 ‘ㄹ’

9) ‘쏘사(용가 제65 장), 년글 주리여(용가 제20 장)’ 등에서는 허사 내에서 활음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년글 주리여(용가 제20 장)’와 같이 허사 내에서 y첨가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물론 탈락 현상이 일어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탈락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하였다.

10) 실사에 계사 ‘아’가 결합되고 그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기 이’ [ㅁ] 로 바뀌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 고지오(꽃 荷) + 아 + -과 등 그리고 이 유형에서 ‘나모~남’과 같이 어간이 비자동적 교체를 보여 ‘나모’와 같이 일부 형태가 유형(2)에 속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모도~남근’ 등과 같이 실사와 허사의 형태 모두 각 이형태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비자동적 교체의 표기에 대해서는 후술할 III 장의 뒷부분의 논의 내용을 참조할 것.

이 그대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표기에서 실사는 대체로 형태가 고정되었지만, 허사는 이형태를 표기하여 한 형태로 고정되지는 않았다

(8.3)은 자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도 음운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실사의 기저형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는 실사의 마지막 자음을 그 다음에 오는 모음 어미를 연결표기할 것인가 분철표기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실사와 허사의 연결표기와 분철표기가 표면 음소를 표기에 반영한다면 음소적 표기 원칙은 문제되지 않지만, 분철표기를 하면 음절적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은 표기가 되므로, 이 유형에 속하는 (10)의 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0) 1) 모기(석보, 6; 26a), 누니(석보, 6; 19b), 바다(월인, 제4장), 브르매(용가, 제2장), 지비서(석보, 6; 16a), 그르세(월인, 제7장), 지스니(석보, 6; 30b), 연즈나(용가, 제7장)
 2) 눈에(제2장), 담아(제4장), 일흠이시니(제7장), 들을(제9장), 힘아(제39장), 살이(제40장), 모습(제44장), 담으샤미(제87장), 숨엇더시니(제87장), 여름(제99장)

(10.1)은 실사와 허사를 연결표기한 예들이고, (10.2)는 불청불탁자로 끝나는 실사가 모음 허사를 만나는 환경에서 실사와 허사를 분철표기한 《월인천강지곡》의 예들이다. 《월인천강지곡》에서 이 환경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은 규칙적으로 분철표기하였지만,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연결표기하기도 하고 분철표기하기도 하였다¹¹⁾. 그런데 이른바, ‘음절적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은 이러한 분철표기는 ‘ㅇ’이 음가가 없으므로 ‘음소적 표기’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표기한 것과 차이가 없다. 발화의 차원에서 보면 분철표기한 (10.2)의 예들도 표기된 문자들의 결합

11) (11)의 예에 ‘ㅇ’ 종성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ㅇ’은 정음 창제 후 초기 문헌에서는 어중의 초성에도 자주 사용되었지만, ‘이예, 그예나 공손법의 ‘-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종성 위치로 자리를 옮겨 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 특성이 ‘ㅇ’이 갖는 특수한 음성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유성자음의 분철표기라는 순전히 표기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불청불탁자와 달리 15세기 후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에서 유독 ‘ㅇ’만 분철표기된다는 사실은 당시의 일반적인 표기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섭(1963, 1992)를 참조하기 바람.

을 통하여 표면 음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표기한 예들이라 할 수 있다¹²⁾.

(8.4)는 자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실사의 마지막 자음에 자음 허사가 결합되어 흔히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실사의 마지막 자음과 허사의 첫 자음이 무엇이나에 따라 다양한 음운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실사의 마지막 자음이 8종성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음운현상과 표기의 관계는 달라진다. 특히 실사의 마지막 자음이 8종성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운현상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므로 표기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실사의 자음이 8종성에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실사의 마지막에 오는 8종성 자음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다. 이 가운데 먼저 실사의 마지막 자음이 유음 ‘ㄹ’인 경우를 보기로 한다

- (11) 텅ᄃ노니(훈민정음, 언해), 아ᄃ(두초, 12; 20b), 사ᄃ니(석보, 13; 10a),
입계 사노이다(월인, 제142장), 이플 여노라(두초, 8; 40a), 우ᄃ다(두초,
8; 62a), 받 가는 아비(두초, 7; 18b), 텅ᄃ니라(월석, 1; 6a), 노다가(석
보, 6; 11a)

(11)은 ‘ㄹ’로 끝나는 실사에 ‘ㄴ’으로 시작되는 허사의 ‘ㄹ ㄴ’ 연결체에서 ‘ㄹ’ 탈락현상이 일어나 ‘ㄹ’이 탈락된 결과를 표기한 경우이다. 15세기의 표기에서는 모음이든 자음이든 탈락현상이 일어나면 예외 없이 탈락된 결과를 표기하였다.

(12)와 같은 ‘ㄹ ㄴ’ 유음화 환경에서도 ‘ㄹ ㄹ’로 유음화된 표기는 보여주지 않는다.

- (12) 글ᄃ(월석, 1; 29a), 슬ᄃ니(능엄경, 2; 9b), 슬노니(두초, 7; 16a), 슬노라
(두초, 7; 3b), 슬ᄃ다(두초, 15; 40b), 알노니(월석, 2; 9a), 할ᄃ다(월석
9; 35-1a), 황ᄃ니(능엄경, 8; 5b), 일ᄃ디라(능엄경, 2; 98b), 일ᄃ니라(능
엄경, 2; 2a), 일ᄃ니(능엄경, 1; 62b)

12) 이와 같이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음이나 표면 음절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16세기 이후에 점차 기저에 가까운 형태를 적으려는 쪽으로 표기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섭(1992)의 제6장 ‘분철 표기의 발달’을 참조할 것

(12)의 예들은 각각 ‘꺄, 꺄, 꺄, 꺄, 꺄’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된 단어들이다. 이들 어간말 자음군 ‘꺄’은 다음에 ‘ㄴ’이 오게 되면 ‘ㅎ’이 탈락되어 ‘ㄴ-ㄴ’ 연결체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ㄴ-ㄴ’ 연결체는 ‘ㄴ’이 탈락 현상이 적용되어 유음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12)와 같이 ‘꺄’ 어간말 자음군에서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ㅎ’이 탈락되어 ‘ㄴ-ㄴ’ 연결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12)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ㄴ-ㄴ’ 연결체에서는 ‘ㄴ’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유음화 환경이 된다¹³⁾.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이 환경에서, 현대국어라면 [할꺄(꺄+-는), [알꺄(꺄+-는), [꺄꺄(꺄+-니)와 같이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지만(이병근 1977), 15세기 문헌에는 (12)의 예와 같이 유음화된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ㄴ-ㄴ’ 연결체에서 구강에서 파열되지 않은 설측음 [l] 다음에 ‘ㄴ’이 이어진다면 ‘ㄴ’은 일반적으로 ‘ㄴ’이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음되므로, ‘ㄴ’ 뒤의 ‘ㄴ’이 [l]인지 [n]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설측음 [l] 다음에 오는 ‘ㄴ’을 발음할 때, 혀 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느냐, 구강의 기류를 차단하고 비음성을 가미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의 예들을 유음화가 일어났지만, 유음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꺄니(능엄경, 8; 5b)’의 ‘ㄴ’ 다음에 표기된 ‘ㅎ’이나 ‘슬꺄니(능엄경 2; 9b), 일꺄니꺄(능엄경 2; 2a)’ 등의 ‘ㄴ’ 표기는 ‘ㄴ’과 ‘ㄴ’을 분리하여 ‘ㄴ’을 발음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ㄴ’ 다음에 ‘ㄴ’이 ‘ㄴ’로 유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닌가 여겨진다¹⁴⁾. ‘ㄴ’의 표기는 ‘다꺄니꺄(당-, 훈민정음, 언해), 한숨 디꺄(당-, 월석, 19; 14b)’ 등에도 나타나는 바, 이들 예에서 ‘ㄴ’은 [l]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8중성 가운데 ‘ㄱ, ㄷ, ㅂ’은 비음화 현상과 관련된다 (13.1)은 ‘ㄱ, ㅂ’ 중성이 비음을 선행하는 경우이고 (13.2)는 ‘ㄷ’ 중성이 비음을 선행하는 경우이다.

13) 이러한 사정은 동일한 환경을 갖는 파생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아드꺄꺄 衰服 니꺄스꺄니(용가, 제25장)와 같이 ‘아꺄’과 ‘꺄’이 결합된 파생어의 경우, ‘ㄴ’이 ‘ㄴ’ 앞에서 탈락되어 ‘아꺄꺄(월인, 제31장)’으로 나타나는 예들도 보인다. 이러한 탈락 현상이 일어나면 탈락된 형태를 이러한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탈락되지 않은 형태를 표기하였다.

14) 송철의(1987; 350)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ㄴ’을 선행하는 ‘ㄴ’ 탈락 현상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 (13) 1) 먹노이다(월인, 제122장), 네 가락만 견주아(월석, 25; 20b), 넘느니(월석, 25; 15a), 고기잡느(남명, 상; 24b), 한 福도 업느나 월인 제33장), 아니 듣는다(석보, 6; 11a)
- 2) 문놋대(문-, 두서, 13; 7a), 건노니(간-, 두초, 16; 4b), 든느니라(든-, 두초, 20; 33a), 든느 짜해(든-, 두초, 12; 29a), 누른 몰애 든느나(든-, 두초, 12; 24a)

(13.1)과 같이 ‘ㄴ’ 앞에서 어간말 ‘ㄱ, ㅂ’은 비음화가 일어난 표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13.2)와 같이 어간말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뀐 비음화의 결과를 보여준다. (13.1)과 (13.2)의 차이가 당시의 비음화 현상의 적용에 차이인지, 표기의 차이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비음화 현상이 음소 연쇄상의 제약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당시의 비음화 현상도 현대 국어에서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음화 현상이 통시적으로 ‘ㄷ’만이 아니라 ‘ㄱ, ㅂ’도 비음화되는 방향으로 그 적용 영역이 확대 이미 15세기에 ‘ㄷ, ㄱ, ㅂ’이 ‘ㄴ’ 앞에서 비음화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표기가 모두 실제의 음성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13.2)만이 실제의 음성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4)와 같이 ‘ㄷ’도 ‘ㄴ’ 앞에서 항상 비음화된 표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 (14) 문느니(문-, 월인, 제133장), 신남기 것든놋대(것든-, 두초, 12; 23a), 혼느
 듯ㅎ도다(흔-, 두초, 12; 29a), 견놋대(간-, 금삼 2; 55b), 귀에 듣논갸 월
 인, 제2장)

(13.2)와 (14)만 놓고 볼 때, ‘ㄴ’ 앞에서 ‘ㄷ’의 비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났는지 수의적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ㄴ’ 앞에서 ‘ㄷ’의 비음화는 수의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되지만(송철의, 1987; 351), 비음화 현상이 음소 연쇄상의 제약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필수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이기문, 1972; 119). 전자의 경우였다면 당시의 표기는 음소적 표기이지만, 후자의 경우였다면 비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는 음소적

표기가 아니다.

‘ㄷ’의 비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비음 ‘ㄴ’ 앞에서의 ‘ㅎ’ 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5) 1) 노티 말라(두초, 8; 32b), 곳 비코 월석 19; 41a), 짜되 석보 6; 23b)
 2) 빈늬니(방, 법화, 5; 164a), 곳 빈늬닌(남명, 하; 14b)
 3) 논늬대(농, 두초, 12; 20b), 딘늬(당, 두초, 15; 39a), 딘늬다(당, 두초, 12; 29), 전노라(장, 두초, 12; 20b), 다늬니라(당, 훈민정음, 언해), 한숨 디늬(월석 19; 14b)
 4) 빗스오니(법화, 3; 108a), 저썩늬나(용가, 재1 장, 노습고 석보 9; 22b)

형태소의 기저형에 있는 ‘ㅎ’이 ‘ㄱ, ㄷ, ㅂ, ㅈ’을 만나면, 격음화 현상이 일어나 (15.1)과 같이 격음화된 표기로 나타난다. 어간 ‘ㅎ’ 다음에 ‘ㄴ’이 오게 되면 (15.2)와 같이 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경우 ‘ㅎ’은 (15.3)과 같이 중화된 ‘ㄷ’을 표기하기도 하고, (15.3)과 같이 비음화된 ‘ㄴ’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ㄴ’ 앞의 ‘ㅎ’을 ‘ㄷ’으로 한 표기는 ‘ㅎ’의 중화 현상에 대한 표기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15.2)는 기저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추상적인 중간 과정의 표기이다. 현대국어에서 ‘ㅎ’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에서 ‘ㄷ’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¹⁵⁾. 결국 당시 표기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추상적인 표기인 (15.2)를 제외하면 위의 예들은 어간말 ‘ㅎ’이 후행하는 음과 결합되어 격음화를 일으키거나 후행하는 음에 동화된 결과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간말 ‘ㅎ’은 ‘ㄴ’ 앞에서 필수적으로 비음화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15.2)의 ‘ㄷ-ㄴ’ 연결체에서 ‘ㅎ’이 바뀐 것으로 표기한 ‘ㄷ’은 ‘ㄴ’ 앞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비음화 현상을 고려한 표기로 간주된다.

15) 적어도 어간말 ‘ㅎ’은 ‘ㄴ’ 앞에서 ‘ㄷ’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승재(1980)에서는 ‘ㅎ’이 ‘ㄷ’으로 되는 중화 과정을 설정하지 않고 ‘ㅎ’이 직접 ‘ㄴ’으로 동화된다고 하는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15.2)와 같은 예들은 ‘ㅎ’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실현되는 도출 과정에 대한 표기자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ㅎ’이 ‘ㄴ’ 앞에서 항상 ‘ㄴ’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표기자들은 어간말 ‘ㅎ’이 ‘ㄷ’으로 중화된 다음에 ‘ㄴ’에 동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ㄷ’이 ‘ㄴ’ 앞에서 비음화되는 것이 필수적인 현상이었다면 (15.2)와 마찬가지로 (14)와 (13.1)의 예들도 음소들의 통합에서 적용되는 자동적인 비음화 규칙을 통하여 표면의 비음을 도출할 수 있는 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ㄷ-ㄴ’ 연결체와 ‘ㄴ-ㄴ’ 연결체의 표면형은 같으며, ‘ㄷ-ㄴ’ 표기는 ‘ㄷ’이 ‘ㄴ’ 앞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비음화 규칙을 전체로 어간의 형태를 중시한 표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ㄷ-ㄴ’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ㄱ-ㄴ’과 ‘ㅂ-ㄴ’의 표기도 어간의 기저형 또는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중간과정의 형태를 적되, 각 음소 연쇄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음운론적 교체 현상을 적용하여 표면의 음성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¹⁶⁾.

이제 ‘ㅈ, ㅊ, ㅋ, ㅌ, ㅍ’ 등 8종성에 속하지 않는 자음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ㅈ, ㅊ, ㅋ, ㅌ, ㅍ’ 등으로 끝나는 실사 다음에 모음 허사가 오면, 당시 표기는 연철표기되어 표면 음절을 표기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실사의 마지막 자음 ‘ㅈ, ㅊ’ 다음에 자음 허사가 오면 ‘ㅈ, ㅊ’은 ‘ㅅ’으로, ‘ㅋ’은 ‘ㄱ’으로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표기하였다. 단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자음 허사가 오더라도 실사의 형태음소를 밝혀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서는 ‘ㅈ, ㅊ’으로 끝나는 실사 다음에 자음 허사가 오게 되면 실사의 ‘ㅈ, ㅊ’을 ‘ㅅ’ 대신 ‘ㄷ’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조ㅈㅂ’와 ‘마ㅈㅂ’와 같이 ‘ㅈ, ㅊ’ 다음에 오는 자음을 각자병서로 바꾸어 표기하고 어간의 ‘ㅈ, ㅊ’은 아예 표기하지 않은 예들도 보인다. 이러한 ‘조ㅈㅂ’와 ‘마ㅈㅂ’와 같은 예들의 출현도 음운현상과 표기의 대응 관계에 대한 당시의 표기 특성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조ㅈㅂ’와 ‘마ㅈㅂ’는 어간 ‘ㅈ’과 ‘ㅂ’에 겸양법 선어말 어미 ‘-즐-’이 결합된 형태로서, ‘조ㅈㅂ’, ‘마ㅈㅂ’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조ㅈㅂ’, ‘마ㅈㅂ’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조ㅈㅂ’와 ‘마ㅈㅂ’가 ‘ㅈ’과 ‘ㅂ’에 어미가 결합된 어형의 표기로서 ‘조ㅈㅂ’와 ‘마ㅈㅂ’의 출현은 ‘ㅈ- + -즐- + -야’와 ‘ㅂ- + -즐- + -이’와 같은 기저의 형태소들의 결합형에 대한 당시의 여러 유형적 표기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16) (16.2)의 ‘단ㅂ나라’와 같은 표기는 음소적 표기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음절적 표기라고는 할 수 없다. 음절적 표기가 되려면 ‘단ㅂ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16) 1) 좃즈븀나(용가, 제55장), 城 높고 용가 제34장, 물 깊고 용가 제4장), 좃거늘(용가, 제36장), 좃줍거늘(용가, 제36장), 깊거다(월석, 8; 87b), 꺾(용가, 제2장 월인 제7장)
- 2) 존즈뵤(좃-, 월석, 11; 107a), 연줍고(좃-, 월석, 10; 10a), 맏즈오나(맏-, 능엄경, 5; 33b), 맏즈뵤(맏-, 월석 8; 92b)
- 3) 좃즈뵤(월석, 2; 18b), 좃즈와(법화, 7; 132b), 좃줍디(월석, 12; 45a), 맏즈븀란디(석보, 23; 36a), 맏즈뵤(월석 1; 13b)
- 4) 조쯔븀리(좃-, 월인, 제99장), 조줍디니(좃-, 월석, 2; 17a), 마쯔오몬(맏-, 능엄경, 1; 31a), 연줍고(좃-, 석보, 23; 37a), 마쯔븀나 받, 석보 11; 42a), 무쯔보디(문-, 월석, 4; 66a)

(16.1)은 각 형태들의 결합에서 실사 즉 어간의 기저형으로 그대로 표기한 예들로, 주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 나타난다(7). (16.2)는 겸양법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었을 때 어간의 ‘즈, 츠’이 ‘디’으로 표기된 유형이다 (16.3)도 (16.2)와 동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표기로서 종성 ‘즈, 츠’을 ‘시’으로 표기한 유형이다. (16.4)는 ‘즈, 츠’을 형태음소로 갖는 어간이 ‘즈’으로 시작하는 형태와 결합될 때, 후행하는 ‘즈’을 각자병서로 표기하고, 어간의 ‘즈, 츠’을 표기하지 않은 유형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16.2)와 (16.3) 표기 유형의 공존과 (16.4)의 도출 과정이다 당시의 8종성법은 ““빛곳, 열의갓’의 종성 표기 ‘스, 즈, ㅅ, 츠’을 ‘시’으로 적는다”고 한 《훈민정음》 종성해에 따른 표기는 (16.3)이다. 이 표기 유형이 (16.3)을 당시의 현실음을 표기한 것으로 간주하면 (16.4)를 도출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16.3) 유형의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16.1)에서

17) 이러한 표기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한다면 모든 형태소의 형태음소를 표기에 반영해야 하겠지만 (17.1)의 예들은 명사나 동사의 어간 즉 실사의 형태음소만 표기에 반영할 뿐이지 허사는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좃즈븀나(좃-, 용가, 제55장)’와 ‘좃줍거늘(용가, 제3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간의 ‘좃’은 그 형태음소를 밝혀 표기하였지만 겸양법 선어말어미의 경우, {-술-}의 환경에 따라 그 이형태 ‘-술-, -습-, -술-, -습-, -줍-, -줍’을 모두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국어 맞춤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맞춤법을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할 때에도 실사와 허사를 나누어 실사에만 적용되는 표기의 특성으로서 국한해야 할 것이다.

(16.4)까지의 표기 유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태음소 ‘ㅈ, ㅉ’이 ‘ㄷ’으로 중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2)는 ‘ㅈ, ㅉ’을 마지막 형태음소로 갖는 용언 어간들은 겸양법 선어말 어미 {-술-}이 결합될 때에 ‘ㅈ, ㅉ’을 ‘ㄷ’으로 표기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김주필(198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술-}의 여러 이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으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다음에 ‘-줄-’으로 교체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형태음소가 ‘ㅈ, ㅉ’인 경우에 ‘-줄-’이 선택되는 이유도 ‘ㅈ, ㅉ’이 ‘ㄷ’으로 중화되어 {-술-}의 이형태들 가운데 ‘-줄-’이 선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6.4)의 표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ㅈ, ㅉ’이 ‘ㅈ’ 앞에서 ‘ㄷ’으로 중화된 다음 그 ‘ㄷ’이 후행하는 ‘ㅈ’을 경음화시킨 다음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의 용언 어간과 겸양법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들의 결합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16.2)는 당시의 음운현상 음절말 자음의 중화 현상이 잘 반영된 표기이다. 이와 달리 (16.3)은 당시의 8종성 원칙에 따른 표기라고 생각된다. 《훈민정음》 초성체계의 치음에는 ‘ㅈ, ㅉ, ㅉ’이 할당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치조음으로서 조음 영역이 같을 뿐만 아니라, i나 y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음절말 위치에서 ‘ㅈ, ㅉ’이 ‘ㄷ’으로 중화되었고, 그리하여 ‘ㄷ’과 ‘ㅈ’이 달랐다면 8종성법의 규정과 음절말 자음의 중화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표기 규정과 음운현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16.2)는 중화현상을 반영한 표기로, (16.3)은 8종성법을 따른 표기로 간주된다¹⁸⁾.

이렇게 보면 (16)의 각 표기 유형은 ‘쫘쫘고, 맞쫘비’에서 ‘조쫘고, 마쫘비’로 도출되는 여러 음운현상을 표기한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음운현상들은 실사의 형태음소를 밝혀 적은 ‘쫘쫘고, 맞쫘비’에서 표면형인 ‘조쫘고, 마쫘비’로 도출하는 과정으로, 어간말 자음의 탈락, 어간말 ‘ㅈ, ㅉ’의 중화, 겸양법 선어말 어

18) ‘ㅈ’이 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표기를 중화 현상과 전혀 관련없는 표기라고 할 수도 없다. 8종성법의 표기 방향에 따라 중화된 ㄷ을 ㅈ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ㅈ은 다음 음절로 넘어가 무성 폐쇄음을 경음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쁘들 조쫘(‘쫘’ + ‘-다, 내훈 3, 7a)’의 ‘조쫘’처럼 ‘ㅈ’이 다음 소리를 경음화시킨다고 보면 이 유형의 표기도 당시의 일반적인 발음과 표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 ‘ㅈ’의 경음화 등 세 가지 음운현상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 현상들은 (16.1)의 유형부터 ① 어간말 ‘ㅈ, ㅊ’의 중화, ② 겸양법 선어말 어미의 초성 ‘ㅈ’의 경음화, ③ 어간 말 자음의 탈락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순서를 적용하여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이면 (17)과 같다.

	/쫘+-술+-고, /맛+-술+-이/	
1) 이형태 선택	↓	↓
	쫘줍고, 맛즈비	
2) 중화현상	↓	↓
	죤줍고, 만즈비	
3) 경음화 현상	↓	↓
	*죤줍고 ¹⁹⁾ [죤줍꼬], *만쯔비	
4) ㄷ탈락 현상	↓	↓
	조줍고[조줍꼬], 마쯔비	
5) 표면형	[죤줍꼬~조줍꼬], [만쯔바 마쯔비]	

/쫘+-술+-고, /맛+-술+-이/는 실사 ‘쫘’과 ‘맛’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겸양법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 선택 과정인 (17.1)을 거쳐 ‘-줍’과 ‘-즈’를 선택함으로써 ‘쫘줍고, 맛즈비’가 만들어진다. (17.1)에 의해 생성된 ‘쫘줍고, 맛즈비’는 어간말음 ‘ㅈ, ㅊ’을 ‘-즈’의 ‘ㅈ’ 앞에서 ‘ㄷ’으로 중화하는 중화규칙 (17.2)에 의해 ‘죤줍고, 만즈비’가 도출된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는 (17.3)을 적용한 ‘죤줍고(또는 죤줍꼬), 만쯔비’와 같은 유형의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7.4)의 ‘ㄷ 탈락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조줍고, 마쯔비’를 고려하면, ‘죤줍고, 만즈비’에 적용되는 경음화 현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죤줍고(또는 죤줍꼬), 만쯔비’가 문증되지는 않지만, ‘조줍고, 마쯔바’가 ‘죤줍고, 만즈비’에서 도출되는 표면형이라고 가정하여 (17.3)의 경음화 현상을 상정한다면²⁰⁾, 기저형 /쫘+-술+-고, /맛+-

19) ‘*죤줍꼬’와 같이 윗첨자 ‘*’로 표시한 표기형은 15세기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정형이다
 20)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이면 ‘먹고, 조찌, 입보다, 조쯔바’ 등에서, 무성·평·폐쇄음 ‘ㄱ, ㄷ, ㅂ’ 다음에 오는 ‘ㄱ, ㄷ, ㅂ, ㅈ’ 등 경음으로 될 수 있는 평자음은 경음으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의 예들과 (17)의 도출과정, 그리고 II장에서 검토하였던 (3), (4), (5.2), (6)의

술-+이/’에서 표면형 ‘[죵죵쑈 조죵쑈, [만쯔바 마쯔바]’을 도출하는 과정은 (17.1)의 이형태 선택, (17.2)의 중화 현상, (17.3)의 경음화 현상, (17.4)의 경음 앞 증가음 탈락 현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²¹⁾.

이 도출 과정에서 (17.3) 유형의 표기가 문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설명의 부담이기는 하다. 그러나 (17.3)이 당시의 문헌에서 문중되지 않는 이유는 당시 표기의 일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표기에서 허사는 원칙적으로 표면형을 표기하였지만, 허사라 할지라도 첫 자음이 선행어의 말음과의 통합에서,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에 의한 이형태로 실현될 때에는 대체로 그 음운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형태를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실사의 마지막 자음의 표기를 허사의 첫 음과 결합할 때,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경우에는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형을 도출하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²²⁾.

실사의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17)에서, 기저형 도출 과정의 중간적 형태, 표면형 등 몇 가지 유형적 표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경음화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음화 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표기 예들이 많은 것은 이 환경에서의 경음화 현상이 음운론적으로 조건화된 자동적인 교체 현상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표기는 이러한 경음화 현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의 경음을 도출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격음화현상이 개재하는 ‘곤ㅎ나 와 ‘ㄱㅌ나’의 공존이나, 비음화 현상이 개재하는 ‘ㄷㄴ나 와 ‘ㄷㄴ나’의 공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 21) ‘-술-’의 이형태 선택과 ‘-물죵~무죵’의 출현 이유에 대해 이익섭(1963, 1992), 송철의(1987)에서 본고의 논의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익섭(1963; 60-61)에서는 ‘죵죵’과 같은 표기는 순수히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죵죵-’을 ‘ㄷ’ 어간 말음 어간이 ‘ㅅ’ 어간 말음과는 달리 ‘-술-’ 아닌 ‘-죵-’을 취하는 현상과 평행시키려는 유추적인 표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송철의(1987; 346)에서는 말음 ‘ㄷ’인 용언 어간이 ‘-죵-’과 결합하는 경우 어간 말음 ‘ㄷ’이 탈락하면서 ‘-죵-’이 ‘-죵-’이 되는 ‘물죵~무죵’을 고려하여, ‘ㄷ+ㅅ’이 ‘ㅅ’이 되는 것을 역으로 유추하여 ‘조죵-’으로부터 ‘죵죵-’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추적 표기법, ‘ㄷ+ㅅ’이 ‘ㅅ’이 되는 현상, 역유추 등이 15세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현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22) 이러한 표기 기준에 따라 검양법 선어말 어미 ‘-죵-’은, 어말어미 ‘-고’가 ‘ㅂ’ 다음에 ‘ㅅ’로 표기되지 않는 것처럼 ‘ㅅ’으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러한 실사와 허사의 표기 특징은 현대국어 맞춤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형태를 단일화하여 적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표기상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기저형에 순차적으로 음운현상이 적용되어 도출된 실사의 표면형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한 이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17)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한 실사의 이형태들은 기저형, 도출 과정의 중간형, 표면형 등 몇 가지 유형적 표기가 가능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실사의 유형적 표기들을 통하여, 15세기 국어 표기의 특징은 문자가 담당하는 음소들의 결합에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표면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과정에 있는 형태들을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음운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실사의 표기 태도와 달리, 실사의 이형태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교체형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인 교체 현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된 표면형을 표기하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경우에는 (18)과 같이 표면형을 표기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 (18) 1) 남근(용가, 제2장), 굽꺾(석보, 6; 36b), 심겨(석보, 6; 37b),
 나모도(석보, 6; 23b), 구무(석보, 11; 1b), 시므고(석보 19; 33b)
 2) 놀을(獵, 용가, 제65장), 굴으로(粉, 석보, 6; 38a), 올라(석보, 6; 33b)
 마르(원각경, 상 2-2; 154b), 오르게(석보, 13; 9b), 기르꺾(능엄경 6;
 41a)
 3) 물물 得호면(금삼, 2; 17a), 썰리(월석, 1; 51b), 블라(석보, 6; 26b),
 마르와(두초, 9; 27b), 색르니라(훈민정음 언해), 브르게(능엄경 1;
 54a)
 4) 앗은(용가, 제24장), 불아도(남명, 하; 64b), 굳어(남명 상 18b),
 아스(월석, 1; 5a), 브스며(남명, 하; 64b), 그스며(두초 23; 10a)

(18.1)은 ‘나모’와 ‘남’ 유형의 교체, (18.2)는 ‘가르’와 ‘갈ㅇ’ 유형의 교체, (18.3)은 ‘마르’와 ‘물르’ 유형의 교체, (18.4)는 ‘아스’와 ‘앗ㅇ’ 유형의 교체로서 휴지나 자음 앞에서는 ‘나모, 노르, 마르, 아스’가, 각각 모음 앞에서 ‘남기, 놀ㅇ, 물르, 앗ㅇ’로 실현되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들로서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는 유형들이다(이기문, 1972; 153~154, 158~159). 이 외에 ‘ㄷ 과’ ㄷ 이 후행하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비자동적으로 교체되는 이른바 ‘ㄷ’ 불규칙 용언 역시 (18)

과 같은 방식으로 교체된 이형태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였다²³⁾.

실사의 교체형에 대한 이러한 표기 특성과 달리, 허사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든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든 (19)와 같이 표면형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였다.

- (19) 보물(월석, 18; 81b), 시르물(두초, 7; 2a), 구름괘(월인, 제81 장), 마초아(석보, 6; 15a), 머금괘(월석, 7; 31a), ᄃ술와(두초, 8; 59a), 오도다(월석, 18; 81b), 가지로다(두초, 7; 1a), 어렵도소이다(석보, 11; 19b), 겨샤매(용가, 제26 장), 둘 아니로문(월석, 8; 31b), ᄃ초스박(용가, 제27 장), 굳즈븍니(용가, 제66 장), 닙스박(월석, 1; 3b), 보습더나(월석, 1; 5b), 닙습고(월석, 2; 72a), 뽉 ᄃ티 달오(월석, 1; 42a), 사니거늘사(월석, 8; 86a), 바오리어늘(용가, 제44 장), 오나닐(월인, 제34 장)

(19)에 허사의 이형태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허사의 경우에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들이나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들을 모두 그대로 표기하였다. 대격 조사 ‘를, 를, 을, 을, 르’, 주제격 조사 ‘느, 느, 은, 은, 니’, 처격 조사 ‘에, 에’, 속격 조사 ‘의, 의’, 공동격 조사 ‘과, 와’, 감탄의 선어말어미 ‘-도, -로, -뫋(도소), -뫋(로소)’, 겸양법 선어말어미 ‘-습, -습, -졸, -습, -습, -줍’,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 -우, -로, -(사)야’, 연결어미 ‘-고, -오, ‘-어늘-거늘’ 등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확인법 선어말어미 ‘-가, -아, -나’ 등과 같은 이형태들을 모두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였던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허사의 표기 특징은 실사의 표기 원칙의 변화와 달리, 현대국어 표기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3) 실사와 허사가 결합하여 형태 음운론적인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표면에 실현되는 실사의 발음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현상 주에서도 탈락 현상이 적용된 이형태,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비자동적인 교체에 의한 이형태,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교체에 의한 이형태 등은 현대국어 표기에서도 표면에서 실현되는 이형태를 그대로 표기한다.

IV. 결 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의 단위를 살펴보고, 그 표기 단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표기 특성을 통하여 표기 단위 내에 적용되는 표기 원칙을 검토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후, 《훈민정음》에서는 음소 단위의 문자들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표기는 음소적·음절적 표기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의 원칙은 현대국어 맞춤법도 15세기 국어의 표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으로서의 음소적·음절적 표기 원칙은 표면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원칙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이러한 표기 원칙은 15세기 국어의 많은 표기 예들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모든 표기 예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의 표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표기의 단위를 찾아 그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표기 특성을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5세기 국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일치하는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어절 단위로 표기하였으나, 발화 단위인 ‘음운론적 단어’나 ‘음운론적 구’ 단위의 표기도 가능하였다. 교착어적인 특성 상 국어의 어절은 실사와 허사로 구성되는데, 15세기 국어의 표기에서 실사와 허사의 표기 기준은 같지 않았다.

실사에 허사가 결합될 때, 실사의 기저형이 그대로 표면형이 실현되거나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음운규칙에 의해 표면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표면형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기저형에 자동적인 음운현상을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다면, 기저형 또는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과정의 중간적인 형태들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실사와 허사의 결합에서 실사의 표면형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에는 기저형,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중간 과정의 형태, 표면형 등 다양한 유형의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실사의 말음과 허사의 첫 음을 나타내는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사의 표면형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거나 형태론적으로 조

건지어진 이형태라면 표면형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의 표기 기준과 달리, 허사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경우나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경우 모두 표면형을 그대로 표기하였으나, 표면에 실현되는 허사의 첫 소리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하여 도출해 낼 수 있을 때에는 실사와 같이 음운현상이 적용되기 이전의 형태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15세기 국어 표기의 단위와 특성은 현대국어 표기의 원칙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국어의 표기나 현대국어 맞춤법에서 표기의 단위는 세부적으로는 몇몇 차이가 발견되지만, 표기 단위가 변한 것은 없다. 표기 단위 내에서의 표기도 실사나 허사 모두 표면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표기는 15세기와 다르지 않다. 실사의 표기가 15세기에는 표면형을 보다 중시하는 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표기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15세기에 도출해 낼 수 있는 형태라면 기저형이나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중간 과정의 형태도 표기하였으므로 15세기 국어의 표기와 현대국어 맞춤법이 질적으로 차이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할 때, 실사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단일한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하는 한 극단과, 발화하는 표면의 다양한 이형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다른 한 극단의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15세기 국어의 표기의 무게 중심이 표면형 쪽으로 얼마간 치우쳐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국어 표기는 기저형 쪽으로 얼마간 치우쳐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의 차이는 제1단계로 7중성 내에 있는 실사의 마지막 자음과 모음 허사를 분칠 표기함으로써, 제2단계로 7중성 밖에 있는 실사의 마지막 자음을 형태음소로 고정화함으로써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사의 표기 변화로 인해 영향 받은 것을 제외한다면, 허사의 표기는 15세기 국어 표기와 현대국어 맞춤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신항, 『수정증보 훈민정음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김완진,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73.

- 김주필, 「중세국어 음절말의 음성적 실현과 표기」, 『국어학』 17, 국어학회, 1988, 203-228 쪽
- _____, 「국어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과 음운현상」, 『기곡 강신항 선생 화갑 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1990, 451-477 쪽
- _____, 「국어 표기사에 있어서 역사성의 인식」, 『어학연구』 28-3, 서울대 어학연구소, 1992, 399-425 쪽
- _____,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국제고려학회, 1999, 191-230 쪽.
- 박창원, 『중세국어 자음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6.
- 송철의,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국어학회, 1987, 325-360 쪽
- 안병희,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국어연구회, 1959. (1978: 탑출판사 재간).
- _____,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 13, 국어연구소, 1988.
- 유필재, 「발화의 음운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25 호, 국어연구회, 1994.
- 이기문, 「16세기 국어의 연구」, 『문리논집』 4, 고려대학교, 1959(1978년 탑출판사에서 재간행).
- _____,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1963.
- _____, 『개정 국어사 개설』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1972(1977년 탑출판사에서 재간행).
- _____, 「15세기 표기법의 일고찰」, 『언어학』 3, 서울대 언어학과, 1978, 201-209 쪽.
- _____, 「한국어 표기법의 변천과 원리」, 『한국 어문의 체문제』, 일지사, 1983, 47-77쪽.
- 이병근,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77(『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1977, 1-22 쪽에 재수록).
- _____, 「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 국어학회, 1986, 11-39 쪽
- _____, 「훈민정음의 초·종성 체계」,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1988.
- 이병근·최명옥, 『국어 음운론』, 방송통신대 출판부, 1997.
- 이승재, 「구레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국어연구회, 1980.
- 이익섭, 「15세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국어연구』 10, 1963.
- _____,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김형규 박사 송수기념논총』, 1971.
- _____,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 이현규, 「훈민정음의 문자적 특성과 표기법」, 『한국어문학논총』, 1983.
- 이현희,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기곡 강신항 선생 화갑 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1990, 681-703 쪽

- 지춘수, 「국어 표기사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한영균, 「불규칙 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1, 157-168 쪽
- 황문환, 「한글 표기법 연구사」,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2003, 699-726 쪽
- 허 응, 「이조 초기 문헌의 표기법에 나타난 문법 의식」, 『국어국문학』 3, 국어국문학회, 1953.
- _____, 『우리 옛 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 문화사, 1975.
- Coulmas, Florian,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Blackwell Publishers Inc, 1989.
- Defrancis, Hohn, *Visible Speech-The Drivers Oneness of Writing System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 Hockett, Charles F,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8.
- Pike, Kenneth L, *Phonemics: A Technique for Reading Language to Writing*,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7.
- Vachek, J, Written language-General Problems and problems of English, *Janua Linguarum, Series Critica 14*, The Hague: Mouton, Paris, 1973.
- Vachek, J, *Selected Writings in English and General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1976.

● 투고일 : 2003. 9. 24

● 심사완료일 : 2004. 3. 26

● 주제어(keyword) : 통사적 단어(syntactic word),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
 실사(substantial word), 허사(functional morpheme),
 표기단위(units of the writing)